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77 - 104

장애여성의 시쓰기와 내러티브의 정치성 : 랑시에르의 미학을 중심으로

1) 한광주*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시 작품과 내러티브를 통해, 장애여성의 시쓰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랑시에르의 미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60여 년을 장애여성으로 살아온 참여자가 받았던 차별의 내러티브가 장애여성의 시쓰기 행위와 어떻게 관련하며, 장애여성의 이러한 시쓰기가 어떻게 정치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참여자의 시쓰기는, 기존에 질서지어진 세계에 수용되지 않는 자신을 인지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로서, 부당함에 저항하는 ‘데모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참여자가 시쓰기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은 랑시에르가 말하는 ‘지적능력의 평등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기존 시인의 등단 문화에 동조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시를 써나간 행위는 ‘주제화’와 과정이자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셋째, 참여자의 시쓰기와 관련한 서사는 ‘사회적 대응에 따른 결과물로서의 장애’라는 개념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장애/비장애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정교한 성찰을 요구한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장애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 과정이며,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장애여성의 시쓰기는 정치적 행위가 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 랑시에르가 노동자/자본가라는 이분법에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장애학에서 장애인/비장애인 구분도 근본적인 지점에서 다시 사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장애’, ‘장애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부터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장애여성, 랑시에르, 시쓰기, 장애, 데모스, 지적평등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박사과정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¹⁾의 시 작품과 내러티브를 통해, 장애여성의 시쓰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랑시에르의 미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 박정천(가명)은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은 이후 지체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지금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다. 10여 년 전에 시문학 계간지를 통해 등단했지만 이른바 ‘문단’ 활동보다는 온라인 카페 등 SNS에 일기처럼 시를 써서 담아왔는데 이렇게 모인 시가 1천 편이 넘는다. 연구자는 이 중 500편의 시를 건네받아 정독하면서, 이러한 장애여성의 시 작업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함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장애여성으로 60여 년을 살아온 참여자가 양육 과정에서부터 교육, 노동을 포함한 생애 전반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으며 살아온 경험이 담긴 참여자의 시에는, ‘부당’하고 ‘혹독’한, 때로는 생존을 위협받으며 살아온 장애여성의 서사가 문학적 장치에 잘 녹아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사가 단지 취약자로서의 정체성에 한정하여 부정적 인식의 표현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이 삶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힘’으로 작용하여 또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참여자의 시쓰기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갖는 ‘취약자로서의 위상’과 장애여성에게 ‘내재된 힘’이라는 양가적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의 삶에 더 넓게 적용됨으로써,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랑시에르가 말한 ‘근원적 평등’(l'égalité fondamentale)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랑시에르는 그의 저서 『프롤레타리아의 밤』에서 1830년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삶과 그들이 쓴 글을 추적하여 알리고 설명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노동에 지쳐 잠을 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시를 쓰는 등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사는 주체적인 노동자, 노동하고 철학함으로써 이상을 개척하고 혁명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노동자의 모습을 해방적 이미지로 드러냈다. 이러한 랑시에르의 사유를 적용하자면 참여자의 시 쓰는 행위 역시 정치적인 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 장애여성의 몸이 경험하는 내러티브에

1) ‘장애여성’과 ‘여성장애인’이라는 용어는 혼용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말 앞에 ‘여성’을 붙임으로써 장애인의 개념을 남성 중심의 용어로 보았다는 점, ‘장애인’ 앞에 붙은 ‘여성’은 일종의 유표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신숙경, 2021). 이와 달리 ‘장애여성’은 장애를 가진 여성의 독자적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더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했다.

는 추상화된 지식으로 가늠하는 것과는 다른 ‘축’이 있다. 장애여성이라는 교차적 삶의 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배제는 ‘장애인’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겪는 그것과 다른 ‘질’이 있다. ‘장애여성’이라는 살아있는 몸이 어떤 경험을 해내는 ‘현장’이 있으며, 그 현장 안에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어떤 현장에서 ‘실존적인 나’가 ‘무기력하고 비참한 나’가 되는지를 체험을 통해 이야기할 때 그 ‘차별’과 ‘배제’는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는 참여자의 경험은 개인적 사안에 머물기보다는 또다른 장애여성, 혹은 다른 교차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맥락으로 확장된다. 또한 억압적 사회에서 살아오는 동안 차별받고 배제되어 온 장애여성의 서사를 드러내어 언어화하는 일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부여하며 ‘그 자체가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이자 귀중한 자원’으로 작용한다(이혜수, 2022). 같은 맥락에서 학대의 수위가 죽음 가까이 닿았던 경험을 포함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여러 멸시와 억압, 시혜와 동정에 해당하는 경험과 이에 대응하여 시 쓰기를 비롯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온 참여자의 행위를 장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일은 장애여성 담론은 물론 장애학의 담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II. 선행연구

1. 랑시에르 미학에 관한 연구

랑시에르는 미학(aesthetics)을 단지 예술에 대한 사유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인 것의 나눔’의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정치적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서양 고대 정치 철학의 전통 안에서 정치는 인간 본성에 근거한 ‘자질’의 ‘나눔’으로 간주되었다(전혜림, 2017). 누스(nous)²⁾를 가진 철인, 현대적 의미에서 보자면 엘리트 전문가들의 ‘셈’에 의해 각자의 ‘몫’이 나누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고 이들은 ‘몫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2) 정신, 마음, 이성을 지칭하는 고대 그리스어.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은 변화하는 것으로 참 지식이 아닌바, 그 배후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인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수단으로 누스를 말한 바 있다.

“단순히 빈민들이 부자들과 대립한다고 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빈민들을 실재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정치 — 곧 부자들의 지배의 단순한 효과들의 중단 — 라고 말해야 한다. **자신이 바로 공동체 전체라는 ‘데모스’의 과도한 주장**만이 그 나름의 방식으로 — 한 부분의 방식으로 — 정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뭇 없는 이들의 뭇**’의 설립에 의해 지배의 자연적 질서가 중단될 때 정치가 존재한다.”(랑시에르, 『불화』, 39쪽, 강조 연구자)

‘자신이 바로 공동체 전체라는 데모스의 과도한 주장’은 ‘뭇 없는 자’의 주체화 과정이자, 기존의 윤리가 지배하는 ‘치안(police)’에 저항함으로써 정치적 행위가 된다. 랑시에르가 『자본을 읽자(Lire le Capital)』의 공동 저자이자 스승인 알튀세르와 결별하게 된 핵심적인 비판은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혁명의 주체이자 지식계급인 인텔리겐치아(Intelligentsia)와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Proletarier)를 구분한 점인데, “알튀세르주의는 사회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분할의 논리, 불평등의 논리로, 대중의 정치를 소유할 수 없는 치안(police)의 논리”라는 것이다(박기순, 2015, p.181). 이러한 분할은 사회를 두 계층-생산을 하지만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과 사유를 자신들의 고유한 임무로 삼는 가진 자들 -으로 나눈다. 랑시에르는 바로 이 분할에 의해 정치는 소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랑시에르가 말하는 해방은 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모든 것들을 간파하고 있는 지식인들을 포함하는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김회용, 2014). 이러한 해방의 조건으로서 랑시에르는 ‘평등’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이미 내재되어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근원적 평등’이다. 같은 맥락에서 랑시에르가 설명하는 민주주의는 아르케(arkhê)의 논리, 즉 신분이나 부 또는 지식을 기준으로 명령을 기초하는 토대를 부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통치나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어느 누구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자신 이외에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행동이 존재한다는 한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정치적 주체들에 의한 집단적 연표 행위와 표명이 항상 민주주의에 요청되는 것이다(유재홍, 2015).

이러한 정치철학이 문학을 포함한 예술 일반에 적용된 것이 랑시에르의 미학이다. 이러한 미학의 실천으로 랑시에르는 19세기 노동자들의 글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꿈꾸면서 사회질서가 강요하는 분할의 논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발견한다(주형일, 2012).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노동자 꿈의 아카이브’라는 부제가 달린 『프롤

레타리아들의 밤』(1981)이라는 책이다. 이 책을 저술함으로써 랑시에르는 1830년대부터 1848년까지 익명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남긴 텍스트에 담긴 시간, 공간, 정체성, 말하는 방식 등을 규율하는 일종의 선형 체제인 감각적 지형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유재홍, 2015). 굳이 프랑스 혁명 이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한 점에 유의해서 보자면 랑시에르는 마르크스가 『경제철학수고』를 통해 설정한 ‘노동자’의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해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르크스가 말하던 ‘노동자의 해방’이란 생산수단의 소유 및 생산의 관계에 기반한 계급투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은 랑시에르는 자신이 읽고 수집한 텍스트들을 노동 조건을 표현하고 있는 자료들이 아닌, 일종의 철학적·문학적 텍스트로 간주하고 접근한다(전혜림, 2017).

이상의 랑시에르 연구는 장애학에 적용되어 ‘뭉 없는 자’의 서사와 연결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한창희(2023)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Crip Time」 전시를 랑시에르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분석한바, 이 전시를 장애예술이 제기하는 정치적 주체화 과정으로 보았다. 이 분석에서 「Crip Time」은 시간적 규범성을 전복시킴으로써,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삶의 속도를 균질화하는 선형적 시간성에 대한 비판을 담는다. 전시에 참여한 41명의 예술가는 장애·질병의 ‘극복’이나 원상태로의 ‘회복’을 결말로 하는 능력주의적 서사에서 벗어남으로써, 시간에 대한 규범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장애가 있는 자아’를 자전적 이야기로 표현해낸다(한창희, 2023). 이상의 연구들은 ‘뭉 없는 자’로서 장애여성의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데 사유의 기반이 되었다.

2. 시쓰기 효과에 대한 연구

시쓰기 효과에 대한 연구는 창의성 함양(강민정, 2012. 권현준, 1998. 김혜연, 2013, 현남숙(2013))이나 교육적 치료 효과(박소영, 2014. 김남희, 2018. 정재찬, 2009. 배선운, 2013)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정한기(2023)는 시쓰기 효과에 대해 “문학적 속성의 구사 능력의 향상, 창의성 향상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471)”고 주장한다. 시 쓰기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출하여 치유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의 내면표출은 ‘시’가 시행의 제약을 받는다는 장르적 특성상 여타 글쓰기의 효과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는 제목처럼 ‘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쓰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문학 장르로서의 ‘시’와 구체적 실천행위로서의 ‘시쓰기’는 그 사유의 지점이 다를 수 있다. 김중철(2010)은 이 영화가 시를 ‘쓴다’는 것, 혹은 글을 ‘쓴다’는 것과 관련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면서, 시쓰기 혹은 글쓰기 일반으로까지 논의의 영역

을 확장했다. 영화 「시」의 주인공 미자는 이혼한 딸이 맡긴 손자 종욱을 데리고 파트타임 간병인으로 일하며 누추하게 살아가지만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주체이다(황혜진, 2011). 시쓰기를 배우는 미자는 강사의 말에 따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아프게 다가올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글쓰기는 두터운 현실의 벽 때문에 보지 못했던, 혹은 너무 흔해서 별 시선을 끌지 못했거나 너무 은밀히 숨어 있어서 쉽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김중철, 2010).

이상의 연구들은 시쓰기의 효과에 대한 여러 논의 양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시’의 내재적 의미보다는 ‘시쓰기’ 행위를 하는 작가(표현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반영론)을 장애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는 장애여성인 작가가 고통에 익숙해지도록 치유받거나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인 차별과 억압을 자신의 언어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에 대해 저항하는 참여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과 연관된다.

3. 장애여성의 사회적 취약성에 관한 연구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졌다고보다는, ‘장애’와 ‘여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된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집단이다. 교차성 이론에 의하면 계급, 인종, 젠더, 장애, 섹슈얼리티 등을 포함한 사회 불평등의 요소들이 단순한 합이 아니라 서로 교차가 되어 차별을 강화한다(Crenshaw, 1989). ‘장애여성’이 받는 차별과 억압은, ‘장애인’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젠더와 연관된 억압이 누락되고, ‘여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장애로 인한 억압이 누락되기 때문에 그 정도나 심각성이 희석될 수 있다(김은정, 1999). 실제로 장애여성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는 ‘장애’와 ‘여성’뿐만 아니라 ‘질병’, ‘빈곤’, ‘노화’ 등 여러 소수성과 교차되어 있음을 볼 때, 교차성은 장애여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장애여성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취약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거나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쉽게 성적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장애여성공감, 2020)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1993년 12월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고, 국제적으로도 1990년대에 들어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게 되었다(신혜수, 2006).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그 때까지 없었던 존재로 여겨지던 장애여성이 ‘성폭력’이라는 주제와 함께 인식되기 시작했다(조미경, 2003). 장애여성의 성폭력 문제는 일부

사회적 이슈로도 드러나면서 연구 분야에서도 ‘성’(이선민, 2006), ‘폭력’(주경미, 2013), 성폭력(안옥희, 2000; 정진옥, 2013; 문현주, 2014; 신기숙, 2010; 홍정련, 2014), ‘차별’(김정애, 1999)과 관련 주제가 자주 등장했고, 장애여성과 관련한 정책에 관한 연구(정은자, 2012; 이준우, 2008)로 이어지기도 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발달장애 여성이었던 점에서 이들의 돌봄 역할을 하는 가족에 관한 연구도 이어졌다(성완용, 2019; 김미정, 2012; 안옥희, 2000; 양선화, 2008; 임명희, 2017). 이외에도 장애여성에 대한 연구가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등 성역할과 관련한 연구(이가연, 2023; 김정호·김문근, 2023; 고다경, 2020; 강봉하·김진숙, 2022; 고미선, 신나래 2015; 박명숙 2013)는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의 사회권(정정희, 2022)이나 안전권(곽자영, 2015)에 직업재활(오혜경, 1998), 건강에 대한 인식(홍영순, 2005; 오화영, 2016; 꺾지영, 2013; 이보람, 2023; 문영민·박은영·전지혜, 2019; 이진희, 2013)에 관한 연구는 장애여성의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실천적 제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연구의 흐름에서 아쉬운 점은 ‘장애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며, 이는 자칫 장애여성을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으로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는 장애여성운동에 하나의 누빔점이 되었으며 정정훈(2021)은 이 선언문을 페미니즘으로 독해함으로써 ‘여성주의 실천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경험’이 그 실천에 참여한 이들에 의해 어떻게 하나의 정치적 지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실천에 기초한 정치적 지식이 어떻게 이론과 공명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선언문에서 쓰인 불구(Crip)라는 말은 당시로서 생경하게 들리기도 했는데, 전해은(2023)은 ‘불구화하기(cripping)’에 대해 ‘교차성을 전제’하면서 맥루어(McRuer)와 케이퍼(Kafer)의 이론을 빌어, ‘장애’를 다르게 사유할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용어로 설명했다. 그 이전에도 장애여성의 서사와 ‘당면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당대비평 기획팀(김은정·안은자·박영희·홍성희, 2001)은 ‘장애’와 ‘성’이라는 이중의 차이를 가진 몸을 통해 장애여성이라는 범주의 의미를 살펴보고, 장애여성의 삶을 ‘다양한 몸의 평등한 삶’이라든지 ‘다름’에 대한 철학적 담론으로 가져와서 논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은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취약하고(정정희, 2020) 비가시적인 존재(정정훈, 2017)로 인식되는 것은, 여전히 장애여성에 대해 잘 모르고, 이는 장애여성의 경험에 대한 공유가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장애여성에게 직접 들은 장애여성의 경험과 ‘삶’은 우리 모두가 처해 있거나 해결해야 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또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장애여성이 말하는 ‘장애여성의 고유한 경험’, ‘삶에

내재한 힘' 등에 관한 관심은, 학술 연구보다는 인터뷰 기사나 생애 기록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학과 여성학의 관점에서 장애여성의 경험을 연구하는 일은 더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문헌 연구이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와 관련한 작가의 경험을 분석한 점에서 내러티브 연구이다.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삶을 기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에는 인간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삶을 살아가는, 즉 이야기하는 유기체라는 개념이 전제된다.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되물어가며 거시적·미시적인 서사를 구성하고, 이러한 서사가 서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맥락으로 형성될 때 이는 내러티브가 되어 연구자에게 탐구의 대상이 된다.

내러티브 탐구의 이러한 관계적이고 맥락적인 특성과 일련의 탐구과정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밀접한 관계 맺기를 요구한다(염지숙, 2009). 이렇게 관계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은 연구자와 참여자에게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나가는 과정에서 양쪽 모두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김무길, 2005). 내러티브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의 이야기는 탐구는 시간성(Temporality), 공간성(Place), 사회성(Sociality)이라는 3차원적 공간(Clandinin & Connelly, 1990)을 통해 해석된다. 여기서 시간성이란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에 대한 연관성을, 공간성이란 인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공간을, 사회성이란 사회적 맥락 속의 상호작용으로의 경험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의 상황과 경험에 관심을 가지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박정천(가명)은 64세의 장애여성이다. 10년 전에 노들장애인야학의 학생으로 들어오면서 '장애인에게도 삶이라는 게 있다'는 자각과 함께 일상의 생각과 판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장애인 단체 활동가이자 일상의 소회를 시로 표현하는 일에 적극적인 '시인'이다. 참여자의 생애 전반에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겪을 법한 부정적 경험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온전하게 양육되지 못하고 친척집을 전전한 일, 임시

양육자인 고모에게서 정서적 물리적 학대를 당한 일, 장애를 이유로 초졸 이후 공교육을 받지 못한 일, 17세 때 자살을 권유하는 아버지를 피해 목발 하나 든 채 가출했던 일, 봉제공장에서의 임금차별과 성적인 폭행 등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 억압과 폭력을 고스란히 겪었다. 이런 기억은 참여자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참여자의 시, 「나는 시인이 아니다」)로 남아있어, 가끔씩 가슴이 타오르는 느낌으로 힘겨울 때는 ‘시’로 풀어내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한다.

참여자의 내러티브는 질병 서사와도 연결된다. 소아마비라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었고, 성인이 된 이후 ‘섬유근육통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이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견딜 만하게 몸에 내재하고 있어 늘 긴장 상태이다. 2023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일정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몸 상태를 검진한다. 자신의 질병을 원망하거나 적대시하기보다는 몸에 찾아온 손님 대하듯 다스려가고 있는 참여자의 일상은 장애여성이자 질병인의 교차적 서사를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은, ‘질병’과 ‘질병인’에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다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참여자가 쓴 ‘시’와 심층 인터뷰 내용이다. 연구자는 인터뷰 전에 참여자로부터 오백여 편의 시를 건네받은 바 있다. 이후 총 2회 인터뷰를 가졌으며, 연구 기간 전반에 걸쳐 수시로 텔레그램과 전화 통화로 소통하였다. 1차 인터뷰에서는 개방적인 질문으로 시의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텔레그램과 통화로 보완하였다. 2차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갈때기식 방법’을 적용하여 첫 번째 인터뷰에서 코딩화를 통해 추출한 특정 사안에 대해 심화된 질문을 함으로써, 본 연구 주제인 장애여성의 시쓰기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했다.

3. 자료분석

먼저 오백여 편의 시를 꼼꼼히 읽으면서 내용별로 범주화하고, 인터뷰 녹음자료는 클로버 앱을 통해 한글로 변환한 후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의미있는 텍스트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시는 표현론적 관점과 반영론적 관점을 통해서 분석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작가 자신으로, 작가의 경험을 시에 담았다는 점에서 표현론적

관점을, 시적화자의 경험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억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반영론적 관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전사 자료를 줄코딩 방법으로 범주화 작업을 한 후, 시의 내용 중 서로 교차하는 부분을 찾아 연결하며 새로운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5개의 범주와 각 범주마다 3개씩 총 15개의 주제를 구성했다. 이어 2차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이미 줄코딩을 통해 범주화한 자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차 인터뷰로부터 추출된 범주에 2차 인터뷰 내용을 적용하면서, 주제와 내용의 긴밀한 연결과 장애여성의 삶을 잘 드러내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미 범주화된 자료를 묶거나 취사선택하여, 3개의 범주와 6개의 주제를 추출하였다. 이후 각 주제에 포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미 수집해 놓은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찾아 사회적인 맥락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작업으로 참여자의 기고 글이나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사안을 놓치지 않는지, 잘못 기록된 것은 없는지 교차적으로 분석하며 살펴보았다.

4. 연구의 윤리적 확보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참여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내용과 목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내러티브 연구의 특징을 공유하면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평등한 위치에서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녹음할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이 녹음 기록은 본 연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질문한 내용 중 밝히기 싫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이미 말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식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전했다. 2차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전사본을 참여자에게 보여주며 사실과 다르거나 드러내기 싫은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연구를 중단하거나 특정 내용을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렸다.

IV. 연구 결과

참여자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1인칭 시적화자 혹은 시적 대상으로 한 ‘시’로 표현했다. 따라서 참여자의 시는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 내러티브와 내용상으로 일치했다. “장애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땀별을 고스란히 맞으

며 맨발로 자갈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고 서술할 만큼 참여자 삶의 궤적에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과 배제, 억압이 마치 축소판처럼 담겨 있었다. 한편, 참여자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면은, 장애여성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호명을 그대로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안에서 꿈틀거림이 있고 이는 끊임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주체적인 모습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시’는 시각적 충족의 대상이자 ‘몸으로 기억되는 하나의 언어적 사건’으로 다가오게 할 뿐 아니라, ‘현존하는 사건으로서의 시’를 경험함으로써 문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삶을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전망을 얻게 한다(김소은, 2020). 참여자의 시 역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왔음이, 그의 ‘시’에 토사물처럼 담겨 있는 ‘현장’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범주와 소주제는 <표 1>과 같다.

<표 1> 범주와 소주제

범주	소주제
혹독한 세상과 마주하여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삼류로 살아가기
나를 발언하기	나는 시인이 아니다
	배려라는 이름의 배제
장애인에게도 ‘삶’이란 게 있구나	부당한 세상, 맞서는 힘 저항해야 하는 통증
	질병이 있는 몸과 관계 맺기 삶의 성찰, 몸의 초월

1. 혹독한 세상과 마주하여

1)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아이는 가방에 지갑을 숨기고 / 눈물 담길 채찍을 저물도록 기다린다 / 밥 주는
 고모의 주걱보다 / 그의 눈 안에 들고픈 간절한 바람이 / 처절하게 무너지던 날에 //
 종아리 터져 피투성이로 찾아오는 고향은 오히려 / 아이의 허한 심장 달랠 만한 꽤
 감이었다. (『불놀이』)³⁾

³⁾ 본 연구에서 인용한 시는 모두 참여자의 시로 작가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시 인용 중 ‘/’는 행 구분을,

“우리 고모는 집에서 눈 한 번 맞추지 않고 나를 그냥 내버려두었어요. 그런 속에서 나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바깥으로 돌아다녔지. 그러면 고모는 한 번 찾지도 않으면서, 그 몸뚱아리를 해 갖고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밤 늦게 들어가기라도 하면 고모는 나를 막 때리고 그랬어요.”⁴⁾

참여자는 그의 유년시절을 ‘학대’라고 단정지었다. 먹이고 입혔다고 해서 ‘키웠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새 여성을 집에 들이면서 참여자는 친척집을 떠돌아다니며 양육되었는데, 마지막 양육자였던 고모는 당시의 어린 참여자를 ‘동생(참여자의 아버지)의 인생을 망쳐버린 원인’으로 보았다.

참여자의 시에서 눈이 띄게 자주 등장하는 시어는 ‘노을’, ‘밤’, ‘저물녘’, ‘일몰’, ‘석양’ ‘만장’ 등으로 죽음을 암시한다. 그만큼 참여자는 죽음을 많이 생각했다고 한다. 장애인은 오래 못 산다, 길게 살아야 한 사십 살려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다. 그런 참여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살 줄은 자신도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한다. 참여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자 위안이었다. 삶이 정말 힘들 때 죽음이 있어 고통의 끝이 있거니 했다. 만에 하나 참여자가 죽음을 맞이했다더라면 그것은 ‘타살’이고 ‘살해’로 규정될 일이다. 참여자가 실제로 죽음을 직면한 처음은 17살 즈음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껌짝 안에 있던 농약을 다 꺼내놓고 ‘너랑 나랑 죽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랬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니 왜 나보고 죽자고 해? 좀 생각해 보자고, 오늘은 아니라고. 그 다음 날 바로 서울로 내뺐버렸죠.”

새벽이 오며 절름발이 아이는 맨몸에 산을 넘고 있었다./ 다시는 이 길에 서지 않으리라고 죽을 맘을 먹고/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작은 가슴에 인두질을 하고 있었다.(「함정」 중에서)

시의 시간적 배경인 ‘새벽’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자, 조금만 지나면 동이 틀 것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다. 시적화자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아무 보호막 없이 ‘맨몸’

‘//’는 연 구분을 나타낸다.

4) 본 연구의 인용문은 모두가 참여자의 진술이므로 진술자를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으로 힘겨운 ‘산’을 넘고 있다. 당시 참여자에게는 ‘죽음에 대한 강요는 부당한 것’이라는 ‘앓’이 있었고,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하여 ‘도망’이라는 선택을 하게 했다. 참여자가 도착한 서울역은 당시에 이른바 ‘무작정 상경’을 한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이농과도 관계가 있다. 농촌에서 삶을 이어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상경하여 서울의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1978)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서울역에 도착한 것은 참여자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남대문파출소를 찾아가 “나 기술 배우는데 보내주세요”라고 말했다. 참여자는 이 때를 한 에세이에서 “미치 몰랐던 무정한 사회에 첫발을 딛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경찰의 손에 이끌려 간 곳은 부녀보호소였다. 당시에 서울시는 여성 직업훈련 시설로 부녀사업관, 부녀복지관, 동부여자기술원, 종합여자훈련원 등을 두고 있었는데 기술 교육보다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잡혀온 성매매 여성을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기독교 장로교 단체에서 하는 ‘애란원’⁵⁾으로 옮겨 양재기술을 배웠다.

2) 삼류로 살아가기

입성도 누추한데 들쳐업힌 숙명은/ 길길이 뛰어들어 / 굵은 세월과 상관 없이 / 제 살점을 갈아먹고 크다.// 팔닥거리는 과거의 환영들이 / 들끓어 울적이며 처연한 몸부림에/ 누런 곰팡이로 올라붙는 한 때// 영과 혼의 거리를 조절해야 하는 길은/ 언제나 신작로는 아니었다.(『그림자』 중에서)

“양재학원에서 다 배우고나서 의상실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장애인에다가 여자에다가 안경 끼고 딱 가니까, 아침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구했다고 막 이래. 그래서 그냥 나오는데, 뒤통수에다가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는 거야. 어디 안경 낀 병신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이러면서. 야, 세상은 만만치가 않구나. 처음 당한 거야.”

참여자가 구직 과정에서 겪은 경험은 1970년대 말 당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1970년대는 RI(세계재활협회)의 ‘재활 10년 선포’(1970)와 ‘장애인의 권리선언’(1975)

⁵⁾ 애란원은 1960년 미국 선교사인 반애란이 지은 ‘가출소녀와 고아, 성매매여성 보호 및 자활시설’이다. 1973년 ‘미혼모 전담 보호 및 자활시설’로 전환되었다.

및 ‘세계장애인의 해’ 지정(1981)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장애인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한국에도 영향을 끼쳐 1978년 ‘심신장애자종합보호 대책’과 ‘도시환경시설 개선지침’ 등이 발표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은 전무한 상태였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6). 당시의 사회적 인식에서 참여자의 첫 구직은 당시 우리 사회 ‘금기’와의 대면이기도 했다. 어떠한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재수없다’고 믿는 속신에는 ‘비정상적인 것’, ‘이질적인 것’, ‘낯선 것’ 등은 상당히 큰 몫을 한다(김열규, 1979). 장애를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 속에서 참여자에게 수식되는 ‘장애’, ‘여성’, ‘안경’ 등의 단어는, 교차성을 가진 장애여성으로서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참여자는 엉겁결에 당한 수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이는 앞으로 이런 차별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이 땅의 천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함께 목말라 할 뿐/ 깃발을 기워줄 수 없는/
나의 무력한 육신의 연약함이/ 그들 앞에 부끄럽고 슬프다./ 사라지지 않는 그들의
절규 귓전에 맴돌아/ 이불 둘러쓴 채 뜨거운 방에서 뒹굴어도// 나는 지금도
춡고 아프고 슬프다.(「겨울, 춡다」)

“난 그래도 아무진 손재주가 있어 취직은 바로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완성품을 더 내는데 임금은 비장애인 노동자보다 덜 받는 거야. 사장은 장애인에게 일 시켜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는 식이었고.”

참여자는 이 상황을 꼭꼭 참았다고 한다. 그 부당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일을 준 것만으로도 무슨 시혜를 베푸 양하는 사장에게 장애여성 혼자 몸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의 억울함은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지금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이들은 참여자의 시에서 대부분 ‘천민’으로 등장한다.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 의류업계의 큰 변화는 기성복 시장의 활성화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되고 대중 매체가 발달하면서 기성복 시장이 커지면서 의류 산업이 전문화·기업화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대기업이 기성복 산업에 대거 참여하고 유명 디자이너가 새로운 유행 감각을 기성복에 도입하는 등 기성복 산업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패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큰 회사가 등장함에 따라 참여자는 소규모 공장에서 분업화된 큰 공장의 노동자가 되었다.

2. 나를 발언하기

1) 나는 시인이 아니다

백지 위에 / 내지른 배냇짓 // 오물거리기도 하고 / 히죽거리기도 하지 // 손가락
을 오므려도 보고 / 찢어 보기도 해 / 아직은 맛을 모르면서도 / 입맛을 쫓 쫓 / 감
당 못할 자극에 /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해. (「나의 시」 중에서)

“내가 지금은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졸업했지만 그 때는 초졸이고,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야 시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게 전혀 없
으니까 진짜 아는 단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었다
면 이러쿵저러쿵하는 수다가 될 수도 있지만,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은 없는데 나는
좀 말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쓰는 녀두리 같은 거예요.”

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의 맛을 알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한 참여자
는, ‘시’라고 하는 장르에 대한 지식보다는 ‘시’가 가지는 ‘표현’이라는 기능에 충실하면서 시
를 써온 것으로 보인다. 시쓰기는 참여자를 ‘말하는 위치’로 옮겨 놓았다.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표현할 단어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사전을 파헤치는 일이었다. 장애여
성이 경험한 것을 표현할 단어 딱 하나가 찾아지지는 않을 때는 우리말사전, 시어사전 등을
온갖 사전을 공책 옆에 쌓아놓고 뒤지곤 했는데,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적절한 단어 하나를
찾다가 밤을 훌쩍 새는 날도 있었다. 이러한 시작행위는 플로베르(Flaubert,)의 일물일어설
(一物一語說)⁶⁾을 연상케 한다. 그렇게 힘들여 쓴 시를 일명 ‘클리닉’ 해준다는 온라인 카페에
올리면 참여자의 고된 시어는 무시받기 일쑤였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다만/ 가슴에 불이 있을 뿐// 시를 공부한 적도 없고/ 시 쓰
는 형식도 모른다// 다만/ 삶이 너무 뜨거워/ 담고 있지 못해 토해냈을 뿐// 나는

6) 프랑스의 소설가 플로베르(Flaubert)는 ‘작가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는 단 하나밖
에 없다’는 일물일어설(一物一語說)을 말한 바 있다. 이는 작가가 단어 선택에 있어 그만큼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은 일물일어설에 대한 플로베르의 언급으로 내용은 널리 알려졌지만 출처는 불
분명하다. “Whatever the thing you wish to say, there is but one word to express it, but
one verb to give it movement, but one adjective to qualify it: you must seek until you
find this nun, this verb, this adjective.”

시인이 아니다/ 다만/가슴에 강이 흐를 뿐// 맞춤법도 다 틀리고/ 말도 어눌하다//
다만/ 흐르는 물이 어지러워/ 주저앉아 눈물 흘릴 뿐// 나는 시인이 아니다(「시인이
아니다」)

“내 시를 클리닉 해준다면 그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시에는 한문이 들어가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럼 이거 뭐라고 쓰죠? 그래서 나 이거 진짜 어렵게 찾아서 쓴 건데,
했더니 어쨌든 다시 찾아오래. 그래서 안 찾아봤어요. 그냥 뇌됐어요.”

인용한 시 「시인이 아니다」에는 참여자가 시를 써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역설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장애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온 차별과 억압은 가슴 속 불이 되었고, 이를 도
저히 담고 있을 수 없어 ‘토해’낸 것이 ‘시’라는 말은 참여자에게 시 쓰기가 어떻게 기능하는
지 잘 알 수 있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가 상품화되는 통로인 이른바 ‘문단’의 기성작
가들에게 참여자의 시가 곱게 수용되지 못함은 당연한 일이다.

죽어야 사는 것이 있다 / 미쳐/ 갈무리 되지 못하고 뱉어내는/ 설익은 나의 언어
이리// 말이란 이리 쉽게 쏟아지는데/ 백지 위에 떨어져 즉사를 하니/ 스스로 숨통
조일 거 아니라면/ 길게 침묵함이 옳지 않을까?// 어쭙잖은 고집만 살아/ 괜시리 시
어만 죽이고 있으니/ 나 어찌 글쟁이라 말할까?/ 가없는 나의 언어 나의 시여!// 시
인이라 함이 낮뜨거운 한낮/ 민망함에 붓을 꺾어 나를 지운다.(「미련한 마음」)

“시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완력이 있어요. 보니까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
람이고, 그래도 이제 내 글에 대한 존심은 있어가지고 누가 건드리는 거 별로 안 좋
아했거든요. 난 내 마음을 쓴 건데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관념적이다 뭐다 막 그
러면서. 관념적인 게 뭐냐 난 그걸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싸우기도 했는데, 학력 가
방꾼 이런 게 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나는 돈도 없고 장애인이고 또 뭐 줄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동인회같은 데 들어가도 별로 섞이지 못했어요. ‘그래, 너네 잘 쓰는
사람끼리 모여서 해봐라’ 이라고 그만됐어요.”

시를 ‘클리닉’한다는 것은 ‘시인’이라는 자격을 얻기 위한 ‘등단’을 도와주는 과정으로, 이
때 ‘원로’라는 사람의 ‘코멘트’는 등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권력으로 작용
한다. 참여자가 이 과정에서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시 쓰기 담론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거부감으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참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주 만난 부정적인 ‘힘’과 유사한 것이었던 까닭이다. 또한 참여자의 시를 그들의 말대로 바꾼다는 것은 참여자의 ‘읽’이 담긴 언어를 권력 친화적인 언어로 바꾸어내는 일이자, 자신을 지탱해 온 버팀목을 내놓고 하는 타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배려라는 이름의 배제

산다는 것은/ 참말로 우습기도 하고/ 한없이 구차스럽기도 해/ 어떤 이는 해를 보고 웃지만 어떤 이는 해가 버거워 찡그린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차디찬 얼음을 뒤집어쓰는 아픔이다/ 새롭게 일어서는 자아를 마주하며 미소를 보내도/ 단혀진 살점에 닿지 못하는 햇살/ 텅빈 무기력의 시간이 추를 달아 떨어뜨린다 / 연신 토해내는 마른 앞에 절규/ 행여 밟혀 사그러질까/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갈갈거린다.
(「천천히 되어가는 것들」 중에서)

“장애인으로서의 비장애인들의 모임에 가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못 가는 상황을 이해 못 해요. 나 같은 장애여성은 어디 나가려면 준비 시간이 길게 들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휠체어 들어가는지 물어야 하잖아요. 나 때문에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노릇이죠.”

같은 해를 보고 웃는 사람과 찡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배려’라는 이름의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참여자의 통찰에서 나온 표현이다. 장애여성에게 모임이 나오라고 하는 것이 ‘배려’라면, 휠체어 접근이 여부를 장애여성이 확인해야 하고 알아서 불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배제’에 해당한다. 장애에 대한 편견만 작동할 뿐 장애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상황,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활동 영역과 방식을 공유하지 못하면 같은 현장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많은 장애인들은 이럴 때 마음의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으로 ‘불참’을 선택한다.

너는 밤낮 없이 울지마라 하여도/ 한낮에 뜨거움을 삼켜버려/ 연기도 없이 솟구치는 불꽃을/ 멈출 수 없는 나는 아파서 운다.(「달의 노래」 중에서)

“배려 속에 배제는 나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저같이 재가장애인들은 가족들이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그 보호 속에 버림받는 게 있거든요. 나 모르게 집안 회의를 했나 봐. 큰아버지가 저런 애를 무슨 학교를 보내냐, 기술이나 가르쳐서 먹고 살게 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안 보낸 거예요.”

큰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참여자는 초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 참여자에게는 한 마디 묻지도 않고 진행된 일이었다.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당시로서 흔한 일이지만 특히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에 비해서도 교육의 기회는 더 부족하다⁷⁾. 이는 장애인 자녀를 부모 키우는 입장에서도 아들과 딸을 대하는 인식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지 ‘장애’뿐만 아니라 ‘여성’이 교차됨으로써 장애여성은 학령기부터 교육의 기회를 덜 갖게 되고, 이는 이후의 노동을 비롯한 삶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배려 속의 배제’는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인식 차이가 클수록 받는 이에게 더 큰 억압으로 작용한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차별은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참여자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들은 참여자가 20대부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두 아이 양육할 때는 순번을 정해서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기도 했다. 이 고마운 사람들에게서 가끔씩 느껴지던 싸한 기분, 불쾌하긴 하지만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의 실체를 참여자는 노들야학에 와서야 알았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을 같은 ‘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제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원하지도 않는 반찬을 싸주고, 남편에게 대해서도 ‘어디 모자란 사람 아니냐’, ‘도망갈지 모르니까 얼른 아이부터 가지라’는 등의 조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참여자가 기억하는 가장 기가 막힌 말은 “박정천은 그냥 교회에 와서 웃음만 줘도 은혜다.”라고 말한 예전 목사의 ‘축언’이다. 고마운 관계 속에 끼어 있는 차별과 배제를 어떻게 드러내고 바꾸어 나가야할지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정교한 ‘읽’을 필요로 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강한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관계에서는 그냥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때도 있다.

⁷⁾ 2020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는 여성이 52.8%로 남성 3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는 남성 18.7%, 여성 8.2%였으며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한 ‘무학’의 경우 남성 2.9%, 여성 16.9%였다. 참여자 연배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의 경우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여성 83.1%, 남성 63.0%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장애인에게도 ‘삶’이란 게 있구나

1) 부당한 세상, 저항이라는 통증

자정이 훌쩍 넘어 버렸다.// 녹록한 어둠이 지하 공장으로 퍼지고/ 하나 둘 사열을 마친/ 형광등 아래 무거운 눈꺼풀은/ 사력을 다해 마지막 떨림을 잠재운다.// 블랙커피 한 잔과 드링크제 한 병/ 배고픔도 잊고, 잠도 잃었다./ 부어오른 다리로 밤새워 미싱을 밟고/ 불꽃을 날리는 재단 칼의 굉음은/ 온몸을 돌아 몽롱한 기억을 아득하게 만든다.(『반란의 이유』 중에서)

“우리 팀에 사장 동생이 있었는데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우리를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니가 뭘 안다고. 니가 뭐 배우지도 못한 게, 니가 학교를 알아? 막 이렇게 애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지가 대학을 나왔으면 나왔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든 생각이 학교를 다녀야 되겠구나, 개가 나를 무시하는 거는 자기가 대학을 나왔다는 거, 딱 그거 하나거든요.”

‘무거운 눈꺼풀’로 표현되는 공장에서의 피로는 피복 노동자들에게 ‘칼의 굉음’처럼 폭력으로 다가오고 의식마저 희미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 참여자가 생각한 것은 ‘반란’이었다. 그 반란의 방법으로 참여자는 대학 진학을 생각했다. 이는 대학을 나온 사람처럼 훌륭하게 되어 보자는 의도라기보다는, 그게 얼마나 ‘별거 아닌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작업이 가까웠다. 실제로 참여자는 60세가 넘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물론 다른 여러 이유가 작동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별거 아니라는 결론을 얻고 그만두었다.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1983년에 연동교회 부설 야학에 들어간 참여자에게 배움의 방향은 예상을 빗나가다 못해 뛰어넘었다. 연동교회에는 ‘산업부’라는 게 있어서 대학부 운동권 학생들과 함께 노동법을 배웠다. 고리키의 『어머니』, 마르크스의 『자본론』,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정래 『태백산맥』, 그리고 김지하, 박노해의 시 등을 읽었다. 이 공부의 기반에는 ‘해방 신학’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배웠던 예수와 다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편에 선 예수는 참여자가 살고 있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으로 다가왔다.

라면 물이 끓고 있었다.// 불과 몇시간 전에/ 야학 동지들과 술잔을 돌리던 그 자리/ 웬수같은 인생살이라고/ 껍껍 울어대던 평화시장 재단사/ 같이 울어주지 못한 까칠한 가슴이 아프던 밤/ 말없이 들이붓던 술잔만 쓰러져 뒹군다.// 싸한 소주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쓰린 위장 움켜진 하루가 열리고/ 뜨거운 라면 국물에 고단한 가슴을 담근다.// 83년 봄.../ 남대문 시장 새벽 3시/ 고픈 사랑에, 고픈 세상/ 스물 둘/ 맹랑한 야학도 조막만한 여자가 주먹을 꽉 쥐다.// 어둠을 지난 고래는 새 우뚝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래의 꿈』 중에서)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지각한 적도, 결근한 적도 없고, 일도 덜하는 게 아니니 돈을 똑같이 달라고요. 안 그러면 고발하겠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웃는 거예요. 꺾꼬맣고 삐쩍 마른 애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웃겼나봐요. 그런데 며칠 후에 날 불러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았어요. 나 같은 직원은 처음 본대요.”

참여자에게 사장은 저녁에 야학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퇴근 후에 야학에 가는 일이 왜 ‘고마운 일’이 되어야 하는지는, 당시 장시간 노동으로 제시된 퇴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있다.⁸⁾ 그나마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고 부당한 건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은 야학으로 통해 갖게 된 참여자의 예리한 ‘앎’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은 그것을 부당함으로 보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한 데는 물론 야학교사를 비롯한 동지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참여자는 유일한 장애인이자 ‘장애여성’이었다. 비장애인 사회에서 ‘장애여성’인 참여자가 동등한 일원으로 무시받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것 중 하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등 비장애인 남성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해보는 일이었다. 그런 행동으로 비장애남성과 같아질 수 없으며, 그들과 같아지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노들 야학에 들어와 처음 몇 개월 동안 되게 놀랐어요. 전동휠체어를 처음 봤고,

8)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으로 법률상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960년대부터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이 정부에 보낸 편지에는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실려 있다. 노동부의 통계연감에 따르면 제조업 주당 노동시간은 1963년 47.5시간, 1965년 57.0시간, 1970년에도 52.0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너무 대단한 거야.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알아듣고 대화를 하고 있고. 영상 같은 걸 보고 또 책 가지고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장애인에게도 삶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내가. 장애인에게도 장애인만의 삶이 있고 장애인도 그 삶을 권리를 찾아가면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구나.”

참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노들야학을 만나기 전과 이후로 나눈다. 비장애인 사회에서 쫓기지 않게 살아보려고 애써온 것이 전반부 인생이었다면 후반부인 제2의 인생은 ‘장애인인 내가 나로서 산 시간’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아무도 나한테 너 언제부터 아팠냐, 너 왜 그러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비장애인 사회에서는 교회를 가도 어디를 가도 보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언제부터 그랬냐, 왜 그랬냐, 계속 물어봐요. 그럼 나는 계속 나를 설명해. 나는 아기 때 소아마비 걸렸고 뭐 했고 뭐 했고 이걸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잘해도 그냥 재는 장애인이고 장애인인데 이것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이었죠. 근데 노들에 딱 오면서 아무도 안 물어봐요. 장애가 몇 급인지 무슨 장애인지 뭐 아무도 안 물어봐. 노들에 오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편안한 세상도 있구나.”

2) 질병이 있는 몸과 관계 맺기 삶의 성찰, 몸의 초월

겨우 잠든 새벽은 한 시간을 채 못 채우고 부서졌다./ 약 때문일 거야/ 숨을 못 쉴 정도로 몸이 부어오른다// 작은 병에도 남들보다 배로 아파지는 참 허접한 몸통이다 / ... / 견딜 만한 낮은 쉬 지나가고/ 이제 또 싸워야 할 밤이 있는데 난 자꾸 속이 뒤틀린다/ 매운 고추라도 한 움큼 집어넣고 싶은 심정이다.(「마른기침」 중에서)

“늘 아프죠. 어떨 때는 좀 괜찮았다가 많이 아팠다가 이렇게. 진통제 하루에 두 알씩 먹었고 증상이 심하게 올라오면 네 시간에 한 번씩도 먹어야 돼요. 몇 개월 그렇게 먹고 나니까 이러다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면 먹고 참을 만하면 참고 이렇게 했는데 의사선생님은 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증을 참으면 만성 통증이 된대요. 뇌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대요.”

소아마비라는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참여자는 64세 되던 해에 암 수술을 받았고, 당뇨와 섬유근육통 증후군⁹⁾을 앓고 있다. 의사는 참여자의 증세 원인을 스트레스라 단정했는데,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참여자의 말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다’면서 병의 원인을 규정했다. 병명을 받았어도 아픈 건 계속 아팠고, 치료라 할 것도 없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은 없었다. 이후 참여자의 선택은 몸을 잘 살피면서 몸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었다. 좀 아플 것 같다 하면 진통제 먹고 푹 자는 등 몸 쓰는 일을 조절을 한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때그때 조절해야 한다. 몸의 신경을 타고 아픈 병이라 온몸이 너무 아플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내 몸에 찾아온 통증에게 말을 건다.

“또 왔냐? 잘해보자, 내가 잠을 더 잘게, 이렇게 한다든가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그래 이제 살살 하자, 너 온 줄 아니까 우리 살살 하자. 이러면서 시작 하죠.”

참여자의 질병 서사는 Wendell이 그의 저서 『거부당한 몸』에서 말한 ‘일상생활의 전략’과 유사하다. Wendell은 ‘건강한 사람에게 통증은 뭔가 잘못되었으니 대처해야 한다는 신호’이지만 ‘만성통증 환자에게 통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걱정하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통증을 알아채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Wendell은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몸을 무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아픈 사람들은 강한 자아의식을 갖고서, 아픈 몸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을 조절해가면, 증상을 갖고 살아가는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의식과 계획은 삶에 연속성을 제공해 준다. ‘병은 알려야 한다’는 속담은, 병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알려야 다른 질병인들이 ‘병을 가진 채로도 잘 살 수 있다’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럴 때 질병인의 ‘앓’은 세상의 유용한 지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9) 증후군(症候群, syndrome)은 공통성 있는 일련의 병적 징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증후는 증상(symptom)과 징후(sign)의 합성어다. ‘증상’은 환자가 인지하는 질병의 현상을, 징후는 의료인이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질병의 현상을 가리킨다(나무위키, 2024). 의학과 심리학에서 증후군(症候群)은 여러 개의 증상이 연결되지만 그 까닭을 밝히지 못하거나 단일이 아닐 때 병의 이름에 준하여 부르는 것이다. 기술 의학 면에서 증후군은 알아낼 수 있는 특징의 모임을 가리킨다. 특정한 질병, 상태, 병은 그에 따른 이유에 따라 자세히 판명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육체적 이유가 증명되면 증후군이라는 낱말은 그 질병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한다(위키백과, 2024).

V. 결론

랑시에르의 미학을 기반으로 장애여성인 참여자의 시와 내러티브를 분석하고자 했던 본 연구는 참여자의 시쓰기 행위에 집중하여 의미를 탐색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장애여성의 시쓰기는 랑시에르가 말하는 ‘데모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참여자가 자신의 정서를 ‘시’라는 형식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참여자의 정서는 객관성을 갖게 되고, 사회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참여자에게도 장애여성으로서 ‘배려’라는 명목 하에 ‘배제’를 당하면서도 비장애인과 어울려 잘 살기 위해 ‘참기’를 선택하던 시기가 있었다.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표현할 언어가 없었던 시기를 지나, 이를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랑시에르가 말한 대로 치안(Police)은 정치(Politics)가 된다. 랑시에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데모스’라고 했다. 참여자는 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 ‘가슴에 불이 있어, 지니고 있기 힘이 들어서’라고 말했다. 참여자의 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보다는 자신의 정서와 생각을 나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점 그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는 랑시에르가 ‘프롤레타리아의 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가치이자 ‘뭉 없는 자’의 정치적인 행위로, 질서 지어진 세계에 수용되지 않는 자신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봄으로써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둘째, 참여자가 시쓰기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은 랑시에르가 말한 ‘지적능력의 평등’을 보여준다. 참여자는 자신이 공교육 기준으로 초출이라는 점을 들어 시를 쓰는 행위에 대해 ‘어설픈 행위’인 양 ‘나는 시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기준으로 자신의 시를 평가하고 그 기준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랑시에르는 스승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제자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님을 역설한다. 오히려 스승은 피교육자가 주어진 텍스트의 본질을 꼬집어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심급의 텍스트를 전제한다는 것이다¹⁰⁾. 랑시에르가 말한 평등은 목표로서 성취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랑시에르는 스승과 제자의 위계에 대해 ‘설명자가 가진 체계의 논리를 뒤집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바로잡기 위해 설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 무능력이란 설명자의 세계관이 지

¹⁰⁾ 단계마다 무지의 구덩이가 패이고, 선생은 다른 구덩이를 파기 전에 그 구덩이를 메운다. 토막들이 더해진다. 스승의 공무니에 학생을 달고 다니는 설명자가 주는 얇의 쪼가리들이 더해지는 것이다. 학생은 스승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책은 결코 전부가 아니며, 수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항상 스승은 얇을 완결되지 않게 남겨둔다. 다시 말해 학생의 무지를 남겨둔다(랑시에르, 2016: 49)

어내는 허구이다. 설명자가 무능한 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즉 설명자가 무능자를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자크 랑시에르, 2016, 19-20). 참여자가 기존 시단의 등단 문화에 동조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글을 써나간 행위는 기존의 부당한 질서에 대한 거부이며 따라서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셋째, 참여자의 시쓰기와 관련한 서사는 ‘사회적 대응에 따른 결과물로서의 장애’라는 개념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장애/비장애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랑시에르가 노동자/자본가라는 이분법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마르크스의 노동자 개념을 무화시키고자 했던 정치적 행위와 연관된다. 장애여성인 참여자가 받은 차별과 억압은 대부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 받은(disabled)’ 장애인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한 결과이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못 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걷기를 못한다. 이 외에도 설거지를 못 하는 것, 글을 못 쓰는 것, 걷기를 못 하는 것, 요리를 못하는 것 등 많은 ‘못하는 것’ 중 어떤 ‘못하는 것’은 차이가 되고 어떤 ‘못하는 것’은 무능력이 된다. 심지어 참여자는 다른 비장애인보다 작업의 성과를 더 내고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덜 받았고 이에 더하여 장애인인 참여자를 고용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는 의식을 강요받기도 했다. 이 분할의 구분을 랑시에르는 ‘감성의 분할(Le Partage du Sensible)’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랑시에르는 “어떤 공통적인 것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몫들과 자리들을 규정하는 경계설정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감각적 확실성(évidences sensibles)의 체계”라고 부른다(랑시에르, 2000:13).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함께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본래부터 각자의 것이라면 나눈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제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중심부로 끌고 와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랑시에르가 말하는 미학이고, 감성의 분할로 구분된 선을 뒤집어 놓는 것이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 과정이며, 장애여성의 시쓰기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세 번째 결론은, 결론이라기보다는 문제제기에 가깝다. 랑시에르가 노동자/부르주아와 지식/비지식인의 구분을 부정했듯이 장애인/비장애인 구분도 근본적인 지점에서 다시 사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근간으로 발전한 장애학이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손상/장애라는 이분법에 대한 성찰적 논의와 함께, ‘장애’ ‘장애인’ 개념 논의와도 그 맥락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강민경 (2012).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창의성 향상을 위한 한 방향, **비평문학**, 45, 205-231.
- 강봉하, 김진숙 (2022). 지적장애여성의 결혼적응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인문사회**21, 13(4), 1587-1601.
- 고미선, 신나래(2015). 유자녀 장애여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예측요인. **사회복지연구**, 46(1), 371-396.
- 권현준 (1998). 창의성 신장을 위한 글쓰기 방법 연구. **새국어교육**, 1-26.
- 김남희 (2018). 문학치료적 관점에서의 시 쓰기 교육 연구, **문학치료연구**, 46, 한국문학치료학회, 67-91.
- 김소은 (2020). 퍼포먼스로서 ‘시’의 수행성 연구. **드라마연구**, 60, 60-108.
- 김열규 (1979). 민간신앙에 있어서의 부정과 금기. **중앙문화**, 14.
- 김영미 (2023). 여성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 장애의 심각성, 우울, 자존감,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6(4), 55-73.
- 김영옥, 이지은, 전희경 (2020).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메이 편). 봄날의책.
- 김은정 (1999). 장애여성의 몸의 정치학: 직업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생애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은정 (2022).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강진경, 강진영 역). 후마니타스.
- 김혜연 (2013). 작문교육 연구의 지평 : 전형성과 창의성의 문제. **작문연구**, 18, 63-104.
- 김희용, 주연제 (2014). 평등과 해방의 원리에 기반한 랑시에르 사상의 교육적 함의 - 무지한 스승의 보편적 가르침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4), 123-141.
- 박기순 (2010). 알튀세르와 랑시에르. **시대와 철학**, 21(3), 181-208.
- 박소영 (2014). 치유를 위한 시 쓰기 교육, **문학교육학**, 45, 239-271.
- 박종주 (2018).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차성 분석. **여성학논집**, 35(1), 163-183.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6). 한국장애인복지 50년사. 양서원.
- 배선윤 (2013). 생톰으로서의 시 쓰기와 의미. **문학치료연구**, 26, 355-379.
- 유재홍 (2015). 랑시에르의 정치와 문학. **한국프랑스학논집**, 91, 247-287.

- 염지숙 (2020).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론에서 관계적 윤리의 실천에 대한 소고. **유아교육학 논집**, 24(2), 357-373.
- 주형일 (2020). 마르크스주의적 ‘구조’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랑시에르 대 바스카. **인문학연구**, 59-3. 121-162.
- 진태원 (2015).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푸코, 랑시에르, 발리바르. **진보평론**, 63, 185-227.
- 전혜림 (2017). 자기 해방으로서의 정치와 미학-랑시에르의 정치와 미학의 동일성. **인문과학**, 64, 185-224.
- 전혜은 (2018). 퀴어, 페미니스트, 교차성을 사유하다. 여이연.
- 정재찬 (2009). 문학교육을 통한 개인의 치유와 발달, **문학교육학**, 29, 77-102.
- 정정훈 (2021). 장애여성운동, 교차하는 억압에 저항하는 횡단의 정치. **인권연구**, 4(1), 177-205.
- 한창희 (2023). 랑시에르의 미학과 크립 타임(Crip Time) : 감성의 분할과 주체-되기의 정치성.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ts and Culture**, 4(3), 105-116.
- 현남숙 (2013). 창의적 문제해결로서의 인문학 글쓰기. **작문연구**, 19, 275-300.
- 홍영숙 (2019). 관계적 탐구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5(1), 81-107.
- Crenshaw, K.(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Columbia Law School Follow.
- Rancière, J.(1987). Le Maître ignorant: Cinq leçons sur l'émancipation intellectuelle. Le Philosophe et ses pauvres.
- McRuer, Robert(2006), Crip Theory: Cultural Signs of Queerness and Disability, Manhattan: NYU Press.
- Siebers, T. (2019). 장애이론 (조한진 외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8 출판).
- Shakespeare, T. (2014). Disability Rights and Wrongs Revisited-2nd Edition. Published by Routledge.
- Wendell, S. (2013). 거부당한 몸 (김진명, 김은정, 황지성 역). 서울: 그린비.

논문 투고 : 2024.10.11.	논문 심사 : 2024.11.20.	게재 확정 : 2024.11.29.
---------------------	---------------------	---------------------

Abstract

The Politics of Writing Poetry and Narrative by Women with Disabilities With the aesthetics of Rancière

KwangJoo Han*

This study analyses the political meaning of poetry writing of women with disability through the poet's works and her narrative of women with disability. Furthermore, the study finds out how the poetry writing is related to the discrimination of the subject who lived in South Korea as a woman with disability, and how the poetry writing of women with disability acquires the political. As a result, firstly, the subject's act of writing demonstrates the form of 'Demos', which is resistance against injustice, and which is the act of recognizing oneself as an unaccepted being in the ordered society and the act of linguistic expression of unacceptance. Secondly, the process of writing poetry by the subject demonstrates the equality of intelligence. The subject didn't follow the existing culture of debut poetry in South Korea, but wrote her own poetry related to her own desire. This act corresponds to the process of 'subjectivation' and political act. Thirdly, the subject's poetry writing and its narrative reinforce the concept of 'disability as a result of social response', and it further suggests the dichotomous division of disability/ability. In turn, living in Korean society as a woman with a disability corresponds to living in

* Ph. D. Studernt, Dept, Disability Studies, Daegu University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and the poetry writing of women with disabilities becomes the political action to confront it. By extension,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distinction of disability/non-disability in the fundamental point of disability studies, as Rancière criticized the dichotomy of worker/bourgeois. In order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above all, to discuss the concepts of 'disability' and 'disabled person'.

Keywords: Women with disabilities, Rancière, writing poetry, disability, demos, intellectualequality